지식 사회 형성과 한일 어업 협상

지식의 원활한 활용에 바탕을 둔 지식 경제는 지식 사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식 사회란 지식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축적에 힘쓰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사회를 말한다. 우리 사회는 학문을 숭상하는 유교적 전통을 지니고 있어 지식의 중요성을 이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분히 과거 전통과 관습을 익히고 전수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새로운 것을 익히고 활용하거나 고안해 내는 것은 소홀히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교과서에 쓰여있는 형식지만 중시하고, 사회 도처에 널려있는 수많은 암묵지와 이를 통해 생성되는 새로운 지식들을 활용하는 데는 등한시해온 것이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작성 사건이다. 한 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전국 지도를 개인의 창의력과 노력으로 작성하였지만, 김정호는 기존 체제를 문란케 하는 '죄인' 최급밖에 받지 못하였다.

요즘에도 우리 사회에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가치에 대한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어 있지 않다. 정보와 지식은 으레 대가없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불법적인 복제와 복사가 만연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사회는 자료를 정확히 기록하고 축적하는 문화에 익숙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의 흔한 예가 고려 청자 제조 비법이 전수되지 않았다던가, 청와대 史庫가 비어있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또한 부서나 업무의 담당자가 바뀌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은 자료 정리와 축적이 부실한 데서 발생하는 가장 큰 비효율 중의 하나이다. 국내 경제 통계의 경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나, 통계 기준의 잦은 개편으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국내 자료 축적의 문제점이랄 수 있다. 이처럼 정보와 자료가 부실하니 새로운 지식의 창출 역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식 사회의 정착 없이는 지식 경제 역시 이룰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편집인 컬럼

최근에 이루어진 한일 어업 협상의 실패는 이러한 한국의 지식 풍토에서 빚어진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는 협상에 관련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새롭게 확보하는 데 소홀했다. 그저 있는 자료에만 의존한 것이다. 협상단은 국내 어민들의 어업 관행과 실태에 대한 지식이 불충분하였다. 둘째 있는 자료조차 부정확하였다. 업종별, 지역별 어획고 추계 등이 시기별로 정확하고 자세히 정리되어 있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에는 관민 모두의 잘못이 있다. 정부는 정확한 자료조사와 기록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어민들은 단기 수익에 급급해 허위 보고를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진다. 정보와 자료가 불충분하니 애당초 효과적인 전략을 짜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한일 어업 협상 과정은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 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식 기반 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 과제를 많은 돈과 인력을 투입하여 만들고 있다. 그러나 지식 경제는 정보 인프라를 깔고 지식 산업을 육성한다고 해서 성립되지 않는다. 오히려 정보와 지식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사회가 먼저 형성되어야 이의 실현이 앞당겨질 것이다.

지식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보와 지식에 대한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재산권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이다. 지식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적 재산권 심사 처리 기간의 단축 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과제는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축적·기록하는 문화적 풍토를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질서의 확립과 정부 기능의 공정성을 바탕으로 진실이 통용되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지식 기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거창하고 자원 낭비적인 정책들을 남발하는 것보다 실생활에서의 의식과 관행의 변화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